

미얀마의 관개기술센터 지원사업



정종수
한국농어촌환경기술
연구소 고문
songam525@hanmail.net



류기승
한국농촌개발연구소
이사
ksryu400@naver.com



조병진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bjcho07@hotmail.com

1. 서언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와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지원을 통하여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라 칭함)은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대개도국 무상원조기관이다. 이 기관 경제개발부 산하 농어촌개발팀에서는 저개발국가의 빈곤해소(Alleviation of Poverty)를 위하여 농촌종합개발, 농지확대 및 관개시설확충, 농촌인프라(농산물 수확 후 처리시설, 농기계보급,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도정공장, 양식장 및 가공공장 등)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무상원조자금(Official Development Aid, ODA)으로 미얀마연방(Union of Myanmar)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파헝지 관개기술센터 (Patheingyi Irrigation Training Center, ITC)의 기존 시설을 보강하고 관개기술자를 위한 선진기술을 이전할 목적으로 '미얀마북부 관개기술 역량강화 사업' (Capacity Building for Irrigation Technology in Upper

Myanmar) 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목적 댐건설에 필요한 재료 및 토질시험실, 그리고 공무원 연수를 위한 교육장을 포함하는 한 동의 건물을 짓고, 그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며, 한국 측 전문가 파견과 미얀마 공무원의 단기초청 훈련을 통한 기술이전을 기대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하고 미얀마 측 사업 집행기관인 농업관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MOAI) 산하 관개청(Irrigation Department)과의 지원협정에 서명하는 실시협의를 위하여 필자들은 한국농촌환경기술연구소의 연구원 자격으로 2008. 4. 27 ~ 5. 8 까지 12일간 현지에 파견되었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구상에 몇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 관개사업, 경제, 사회의 한 단면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출장기간 중 엄청난 재앙인 사이클론 나르기스 (Cyclone Nargis)로 인하여 13만명이 죽고 2만명이 다친 참상을,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기에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약 5백만명이 사는 미얀마 최대도시인 양곤 (Yangon) 시내를 활쫓고 간 처참한 모습을 보기도 했다.

2. 국가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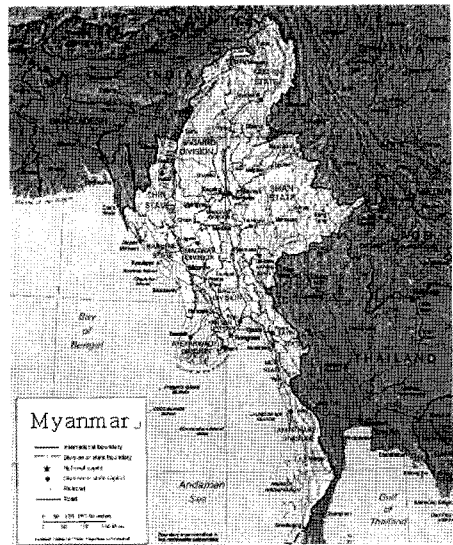
미얀마의 전 국토면적은 676,577km²로 한반도의 약 3.1배, 인구는 약 56백만명이며 종족별 분포현황은 미얀마족 70%, 소수민족(카친, 카렌, 친, 산, 쉐야, 몬, 라카인 등) 25%, 기타(중국, 인도계) 5%로 구성되었다. 종교별로는 불교가 86%로 대다수를 이루고 회교와 힌두교가 각각 4%이며 기독교는 2%에 불과하다. 이 나라는 1886년 영연방이었던 인도에 편입된 후 약 60년간 영국과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가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도는 인구 약 5백만명이 살고 있는 남단의 항구도시 양곤(Yangon)이었으나 2005년 미얀마 중심부에 있는 만달레이주의 내피도(Naypyidaw)로 이전하여 중앙정부기관은 대부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였다. 양곤은 도시면적이 1만km²에 달하는 항구도시로서 각종 생산공장이 밀집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교역물이 몰려드는 무역집산지이다.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 1,000불 미만이다. 산업구조는 명실상부한 농업국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70%가 농촌에 살고 있으며 농업생산이 GNP에 차지하는 비율은 45.2%이고 그 다음이 무역업 21.7%, 3위가 제조업으로서 약 14%를 점유하고 있다.

미얀마의 국토는 북위 9°36'~28°31', 동경 92°10'~101°11' 사이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미얀마 북서쪽에서 뻗어 나온 히말라야산맥이 북단에서 양측으로 갈라져 동쪽으로는 중국, 라오스 및 태국과 국경을 이루며 말레이반도까지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 국경과 접하고 있다. 미얀마는 열대몬순 기후대에 속하여 더운 나라이지만 북단의 카친산과 카카보라지산 등에는 해발 6,000m 정도의 높은 산들이 있어 만년설이 쌓여있는 진풍경을 이루는 곳도 있다.

지형은 북단에서 뻗어 내린 양대 산맥이 중앙부의 평야지대를 끌어안은 형상을 이루며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이라와디강 연변으로 광활한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 평야는 북고남저(北高南低)형태를 이루어 농업개발사업도 남부와 북부미얀마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는 열대몬순기후대에 속하여 여름철과 우기 및 건기 등 3계절로 나누어 진다. 여름은 2월 중순에서 5월 중순사이로 대부분의 지역이 30℃를 상회하지만 내륙중심부에서는 섭씨 43℃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우기는 5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으로 서부 및 남부해안지대는 연 강수량이 3,800mm 이상 내리지만 비가 적은 내륙중심부에서는 300mm 정도 내리는 곳도 있다. 건기는 10월 중순에서 다음해 2월 중순사이로 비교적 온도는 낮으면서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분다. 이 나라는 영토가 넓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기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지만 전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2,500mm 정도이고 연평균온도는 32℃로 기록되고 있다.

3. 농업현황

3.1 농경지 및 개발가능 면적

2007년 현재 전체 경작면적은 12,624천ha로서 전 국토의 약 18%에 달하지만 관개시설의 확충 등으로 개발가능한 면적 약 6백만ha를 더하면 약 18백만ha에 달하여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의 약 9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토지가 평야지대를 이루어 관개시설이 완비되면 동남아에서 중요한 식량생산국으

로 정착될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는 농지확대 및 관개시설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개개발사업 투자액의 약 75%를 북부미얀마에 집중하여 남부지역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987~ 2007(20년)간 개발면적은 표3.1과 같다.

표 3.1 연도별 농지확대 및 관개개발면적

연도	경지면적 (천ha)	관개면적 (천ha)	수리답률 (%)	식부율(crop intensity,%)
1987-1988	7,990	996	12.5	
1996-1997	9,283	1,559	16.8	133
1998-1999	9,680	1,693	17.5	138
2001-2002	10,664	1,989	18.6	149
2002-2003	10,826	1,871	17.3	149
2003-2004	11,052	1,960	17.7	150
2004-2005	11,425	1,928	16.9	153
2005-2006	11,947	2,138	17.9	157
2006-2007	12,624	2,248	17.8	162

자료 :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2008, MOAI

3.2 농업 생산량

이 나라는 전체 인구의 63%가 농업에 종사하며 국민 총생산량의 약 45%를 농산물이 차지하므로 식량증산에 의한 빈곤탈출을 위하여 농지확대는 물론 관개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2년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에 걸쳐 풍부한 옥토를 보유하고 있으나 농업개발사업은 수자원이 풍부한 남부지역에 집중되었으나 현재 북부지역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쌀 생산량은 2005년 이전까지 1,100만 톤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약 12% 증산, 2007년에는 약 25%를 증산하였다. 쌀 생산량뿐만 아니라 두류, 사탕수수, 커피, 면화 등 모든 작물생산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얀마가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식량기지가

표 3.2 연도별 주요농산물 생산량

(단위 : 천M/T)

구분	'89/90	'95/96	'99/00	'01/02	'03/04	'05/06	'06/07
벼	13,804	17,953	20,126	21,916	23,136	27,683	27,039
밀	124	78	117	96	96	159	142
참깨	207	304	296	399	501	504	623
땅콩	459	593	634	723	878	1,039	1,105
감자	130	187	255	329	403	478	522
옥수수	194	275	349	532	704	918	1,032
사탕수수	2,008	3,251	5,449	7,116	6,914	7,187	8,168
면화	63	165	176	141	158	236	268
고무	15	26	27	37	40	30	40

자료 :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2007, MOAI

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3.3 농산물 수출

쌀은 미얀마의 주식으로서 농업생산물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의 농업정책은 농민들이 생산한 쌀, 커피, 담배 및 면화 등 주요농산물은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불복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감퇴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이는 경제작물 수출량 감소로 이어져 농촌의 빈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산물증산책의 일환으로 경제작물 생산량 중 일부는 농민들 자의에 의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쌀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1998-1999 회계년도 이후 쌀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쌀 수출의 경우, 2001-2002년도 쌀 수출량은 939천 톤이었으나 2004-2005년도에는 180천톤, 2006-2007년도에는 14,500톤에 불과하여 1950-1960년대 쌀 100만톤을 수출하여 세계최대 쌀 수출국의 명성을 날리던 때와는 대

조를 이루었다. 또한 쌀 품질이 낮아 마얀마 쌀 수출시장은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었으며 가격 또한 낮게 형성되고 있다.

4. 관개사업 현황

농업관개부(MOAI)에서는 벼를 비롯한 농업전략작물을 선정하고 이들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증산하기 위하여 농지확대 및 관개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얀마 남부지역은 관개시설이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현재는 북부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농업용 수자원개발은 전국에 걸쳐 336개 Dam-cluster를 선정하고 2008년 현재 199댐은 이미 완공되었으며 34개 댐은 시공 중이고 향후 103개댐을 더 건설할 계획이다. 그 중 29개소는 수력발전 겸용 다목적댐이다. 관개개발사업에 대한 법령은 1905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1909년에는 제방축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제도화 되었고 주요 시설은 댐, 취입보, 양수장, 배수갑문 및 기타시설로 구성되었다. 수리시설별 관개면적은 모두 200개소에 1,068천ha를 관개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MOAI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얀마의 수리사업은 농업관개부 산하 관개청(Irrigation Department, ID)에서 전담하여 시행되며 청내 2만여명의 공무원 및 기능직원과 공사용 중장비

표 3.3 미얀마 쌀 수출 현황

회계 연도	수출량(천톤)
2001-2002	939
2002-2003	794
2003-2004	169
2004-2005	182
2005-2006	180

표 4.1 수리시설별 관개면적

구 분	댐	취입보	양수장	배수갑문	기 타	계
개소수	154	18	5	19	4	200
관개면적(ha)	719,749	26,719	22,920	171,507	127,649	1,068,545

1,700여대를 보유하고 적영체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목적 댐 건설공사는 최소인력의 외국 용역단을 고용한다. 우리 조사단이 방문한 Myogyi 다목적댐¹⁾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 장비 인력 모두 관개청 소속이며 다만 단종에 속하는 콘크리트공, 토공 등 단순한 공종에 한하여 하청을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사업비도 모두 내자로 조달하며 누구의 원조도 받지 않고 자기 자본과 기술력으로 거대한 공사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강조하는 설명을 듣고, 폐쇄된 사회주의 국가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5. 관개기술센터의 역할

미안마 농업관개부(MOAI)에는 농업정책기획청(Department of Agricultural Planning)을 비롯하여 관개청(Irrigation Department), 농업기계화청(Agricultural Mechanization Department), 정착 및 토지 기록청(Settlement and Land Record Department), 수자원이용청(Water Resources Utilization Department), 농업연구청(Department of Agricultural Research) 그리고 조사청(Survey Department) 등이 있다. 관개청은 미안마의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하여 모든 관개시설의 유지관리와 신규 댐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을 책임진다. 특히 다목적댐의 건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방대한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는 힘있는 기관이다.

관개청 관개시설 설계과 산하에 미안마 남부에 바고

관개기술센터(Bago Irrigation Technology Center, ITC)를 두고, 북부에 파덴지 관개기술센터(Patheingyi ITC)를 두어 관개·배수 시설의 계획·설계·시공, 공사 중 품질관리, 새로운 기술의 도입, 물관리를 포함한 관개분야 관련공무원, 농민을 위한 기술훈련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5.1 바고 관개기술센터(Bago ITC)

미안마 남부를 담당하는 바고 관개기술센터는 양곤에서 약 160km 북쪽에 위치한 바고본부(Bago Main ITC)와 약 50km 떨어져 있는 홀레그(Hlgué Sub-Project Office)를 두고 있다. 미안마 남부는 북에서 흐르는 강들의 하류이며 바다수위의 영향을 받는 감조지역으로 저평지의 벼농사지대이다. 따라서 건기에는 관개가 필요하고 우기에는 배수가 필요하여 관개·배수 시설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이다. 대부분의 구조물이 배수갑문, 제수문 등 수위조절에 필요한 구조물이며, 특히 물관리 기술이 필요한 지역이다.

바고 ITC는 1988년 4월 미안마 정부와 일본 국제협력단(JICA)과의 기술협력계획에 의해 설립되었다. JICA는 1987~1988 사이 바고 ITC를 위하여 무상원조사업(Grant Project)으로 현재의 본관, 기숙사, 도서관, 재료시험실, 수리시험실의 건축과 시험실 기자재를 제공했으며, 계속하여 1988~1999년 까지 2년씩 연장하는 기술협력사업(Technical Cooperation Project)으로 물관리 시험포의 운영, 기술자 파견, 미안마 기술자 초청 훈련 등 원조사업을 계속하였고, 다시 이어서 1999~2005년까지 후속사업(Follow-up Project)을 함으로서 현재 28명의 기술자, 55명의 기능공, 기타 지원 인력까지 140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수준 높은 시험실 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KOICA가 파견한 한국인 해외파견 자원봉

(1) Myogyi Dam - 미안마 중부 Southern Shan State, Meiktila District 에 위치하며, Zogyi River를 가로질러 건설 중인 다목적댐이다. 댐 형식은 존타입 토 연체이며, 길이 750m, 높이 78.8m, 총저수량 443.43백만 m³ 로 약 12,000 ha의 농지에 용수공급과 135.7 백만 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계획임.

사자로 부터 원격탐사/지리정보시스템 (Remote Sensing/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을 전수받아 RS/GIS시험실을 개설하고 관계사업자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비공식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 JICA는 Bago ITC를 위하여 지금까지 3,500만불 이상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5.2 파텐지 관개기술센터(Patheingyi ITC)

양곤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20km 떨어진 미얀마의 중심부 만달레이주 Patheingyi Township에 있는 파텐지 관개기술센터(Patheingyi ITC)는 미얀마 북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댐의 계획, 설계, 시공에 필요한 건설재료 및 토질재료에 대한 시험, 공사 중 품질관리와 준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관개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농민들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관개기술센터이다. 남부의 바고 ITC와 비교하여 시설, 장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개, 수력발전, 홍수조절 등을 위한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련하여 파텐지 관개기술센터(Patheingyi ITC)의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한국 KOICA에 시설 확충과 기술인력에 대한 선진기술 훈련을 요청하게 되었다.

파텐지 ITC는 현재 본관, 재료·토질 시험실, 교육실, 그리고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험기자재가 1970년대의 낡은 기종이며, 교육실이나 기숙사도 수용능력이 작아 교체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종사인원은 100명 정도, 북부미얀마에서 공사 중인 31개 댐의 품질관리 및 재료시험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매년 적게는 약 1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3 지원사업의 내용

이 사업은 일반적 개념의 농업개발사업과 달리 북부 미얀마(Upper Myanmar)지역의 다목적 댐건설을 위한 공사품질관리, 유지관리,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파텐지 관개기술센터(Patheingyi ITC)를 현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주요내용 역시 댐이나 관개용시설의 공사품질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만달레이주 파텐지에 시험실 및 교육용 건물을 신축하고 각종 시험장비와 컴퓨터 등 첨단기자재를 지원하며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기술역량강화에 사업의 의미를 두고 있다.

합의된 지원 내용은 1) 재료, 토질, 교육실 1,700㎡ 건물 1동 신축, 2) 시험기자재 125종 공급, 3) 교육용 컴퓨터 30대, 사무기기 등 지원, 4) 차량 2대, 5) 한국측 기술자 21m/m 파견, 6) 미얀마 공무원 25명 초청 훈련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사업비 약 200만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6. 마치며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당시 버마)의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묘역에서 미리 설치된 폭탄이 터져 한국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 등 21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한 북한의 폭탄테러 사건이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화를 면했으나,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하여 아까운 인재 각료들이 화를 입고 말았다.

아웅산은 1886년에서부터 1948까지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시대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1948년 우누수상과 같이 독립국가를 건설한 민족주의자로 미얀마국민으로부터 독립의 영웅으로 절대적인 추앙을 받는 인물이다. 당시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

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얀마와의 우호관계를 가지려는 정부의 노력 때문에 국빈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기억한다.

2008년 5월 3일 우리 일행이 판타지ITC가 위치한 만달레이시에 머물고 있을 때 미얀마 남서부 Ayeyarwaddy River Delta 지역을 강타한 Cyclone Nargis는 3.6m의 파도(wind surge)를 동반하여 내륙으로 약 40km까지 상륙하면서 농경지와 수백 개 마을을 쓸고 지나갔다. 당시 우리일행은 그렇게 큰 재앙인지 몰랐다. 수천 명이 죽고 수천 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는 말만 들었다. 그 다음날 우리는 만달레이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미얀마 관개청과의 최종합의에 서명하기 위하여 미얀마 최대도시인 양곤으로 귀환했다. 그 때 양곤 시내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거리의 가로수는 모두 쓰러지거나 뿌리 채 뽑혔고, 허술한 집은 지붕이 날아가 있었다. 시내에는 전기와 수도가 끊어져 모든 식당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우리가 묵던 호텔은 자체 보유한 물과 자가발전 시설을 이용하여 물과 전기 공급에는 차질이 없었으나 물과 전기를 추가로 요구하였다. 군·관 시민의 철야작업으로 중요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면서 시내에는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상자의 숫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천 명, 다음에는 만명 정도, 어수선한 관계로 행정기관조차 통계를 잡지 못 했겠지만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언론통제로 인하여 누구도 모르는 사이, 주 미얀마 미국대사는 10만명이 넘을 것이라 하여 우리 모두는 크게 놀랐다.

아시아개발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당시 77,000명이 사망, 55,000명이 행방불명, 그리고 20,000명이 다치고 약 2백만명이 집과 농지를 잃었으며, 2008년도 GDP의 2.7%의 경제적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당시 수재의연금으로 50만불 지원을 발표했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200만불에 해당하는

현물 지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미얀마 정부는 국제 구호단체의 인력지원을 거부하고, 현물을 현금지원으로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미얀마는 1988년 군사정권을 수립한 이래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군사정부 형태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우리가 원조를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입국사증을 받기까지 필요 이상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방문자 뿐 만 아니라 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영어로 적어내어 비자발급을 위한 사전 점검차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우리가 방문할 당시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어 외부인의 입출국을 제한하고, 외부통신도 통제한다고 들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국내 정치에 대한 어떤 의견제시도 금지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미얀마 남부에서의 관개사업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그리고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바고 ITC는 일본의 JICA를 통한 무상원조사업으로 시설, 장비, 그리고 훈련된 인력을 갖추고 있다. 미얀마 북부지방에서 펼쳐지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시험, 품질관리,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판타지ITC의 시설과 장비를 한국정부의 무상원조자금으로 KOICA가 지원하는 첫 출발을 시작했다. 미얀마정부로 볼 때는 지원규모나 형태, 방법, 파견 기술자의 자질, 초청훈련의 질 등 여러 형태로 비교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지원이 적은 지원 자금으로 실질적이고도 실용적인 원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댐설계, 토질재료시험, RS/GIS분야, 수문, 환경분야의 기술자의 지원을 KOICA의 해외파견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또는 순수한 자원봉사의 목적으로 와 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농공학회 회원 어느

분이 농업·농촌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미얀마 관개 사업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때 만나본 미얀마 주민이나 공무원은 진지하고 순수했다. 그리고 불교국가 국민답게 항상 미소와 친절을 잊지 않았다.

참고문헌

1. 한국농촌환경기술연구소, 미얀마 북부 관개사업 역량강화사업 실시협약보고서, 2008, KOICA
2.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2008 MOAI
3.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2007 MOAI
4. Myanmar Agriculture at a Glance 2007 MOAI
5. Outline of The Irrigation Department 2008 MOAI
6. Training Master Plan for Irrigation Department 2002 MOAI
7. www.koica.go.kr
www.worldbank.org
www.adb.org
www.undp.org
www.fao.org

속담(俗談)풀이

· 게으른 에미네 밭고랑 세듯 한다.

풀이; 김매는 여자가 일을 빨리하지 않고 김매 고랑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것만 세고 있다는 뜻

·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풀이;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흥분다는 뜻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풀이; 말이 많아지면 좋은 말보다 해로운 말이 더 많다. 즉 말 많은 것을 삼가라는 뜻

· 가마가 검다고 밥도 검을까

풀이; 솥은 검은 밥은 검지 않듯이 무엇이든 겉모양만 보고 지레짐작하지 말라는 뜻

· 가을별은 딸 쪼이고 봄별은 며느리 쪼인다.

풀이; 피부가 덜 타는 가을별은 딸을 쪼이게 하고 잘 타는 봄별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다. 즉 며느리보다 딸을 더 생각한다는 뜻.

